

## 한-일 경제전쟁, 제주산업 도약 기회로

제주 R&D 투입 전국 하위권... 연구개발역량 취약  
향후 기업 피해 우려 속 기술 확보 부족 문제 대두  
도, 내년 신규사업 등 전반적 R&D 촉진 추진 계획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가 제주도의 R&D(연구개발) 촉진으로 이어져 제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보복에서 시작된 한일관계 악화로 제주지역에는 소재부품 유관 분야(화학·에너지·식품) 기업의 직접 피해는 없지만 기업들은 향후 갈등 지속에 따른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도가 한일관계 악화 후 기업동향을 살펴본 결과 판로 부족 외에 수입 부품 대체 및 자체부품 생산을 위한 기술 확보 부족이 문제점으로 꼽히면서 현재 취약한 도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가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실제 2017년 기준 지역별 연구개발비 현황에서 제주도의 R&D 총규모는 1560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17위)다. 2016년 기준 GRDP 대비 R&D 규

모도 14위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반적인 기업 역량 강화 모색을 위해 도내 R&D 예산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을 늘리면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적으로 도 미래전략국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도 R&D 혁신 사업을 추진, 본예산에 약 1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국가 R&D 유치 및 도내 R&D 혁신을 위한 기관 협의체(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제주대 등)와 1차 협의회 가졌다.

지역주도 R&D 혁신사업은 제주

지역 성장을 주도하고 나아가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확산할 수 있는 중대형 R&D과제 도출 및 실증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약 10억원을 투입해 지역현안 해결(쓰레기, 폐수, 축산분뇨 처리기법 등)과 산업분야에 대한 실증연구를 한 후 2022년부터 정부과제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R&D 촉진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지역주도 R&D 혁신사업을 추진하지만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4·3수형생존인 '형사 보상' 결정 도민연대 "재판부에 존경·경의"

제주지방법원 "국가는 18명에게 53억여원 지급"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생존인'들이 국가로부터 형사 보상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 받은 4·3수형생존인 18명에게 국가가 총 53억4000만원의 형사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2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형생존인들이 적게는 1년, 많게는 20년 동안 구금돼 입은 피해에 대해 구금 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이러한 형사 보상을 책정했다. 특히 형사 보상은 최저임금(6만68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이번 결정에서는 1일 보상금 최대치인 33만4000원이 적용됐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수형생존인들이 제주지법에 신청한 53억5748만4000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4억7000만원의 보상금

을 받게 된다.

수형생존인 재심과 형사보상 청구를 이끈 양동운 4·3도민연대 대표는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보상금과는 관계 없이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4·3 당시 이뤄진 재판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향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형생존인 18명은 제주에서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당시 재판을 받은 제주도민은 2530명에 달한다.

이후 70여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제주지법에 신청했고, 올해 1월 17일 '공소기각' 선고를 이끌어 냈다. 당시 재판부는 "군법회의를 받은 2530명에 달하는 사람의 수와 개최일자 등 재판사정을 종합해도 단기간에 다수의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는 것이라 추정이 어렵다"며 당시 진행된 군법회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정보격차해소 사업 '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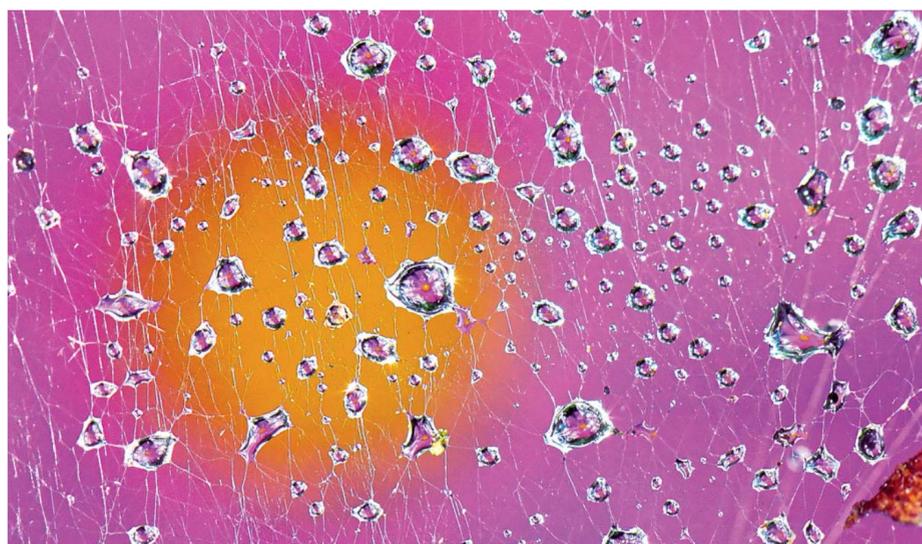
장애인 고령·저소득층 대상도, 사랑의 그린 PC 등 보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고령층,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취약 계층의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사랑의 그린 PC 보급 ▷장애인·고령층정보화 교육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등이 있다.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은 공공·민간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기증 받은 중고 PC를 정비해 도내 정보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까지 130대를 보급하고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제주지역 내 7개 정보화교육 협약기관과 함께 장애인,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기초, 엑셀, 파워포인트, 모바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현재까지 180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빗방울에 새겨진 코스모스 무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린 21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공터 거미줄에 맺힌 물방울에 활짝 핀 코스모스가 투영돼 한 폭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교육생 17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2019년 국민행복 IT경진대회'의 예선을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1일 열리는 본선대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자 153명중 80명을 선정해, 보급 지원되고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9년 기획 / 2019 조미영의 제주마를 탐방... 제주시 이도2동

## 공항·항만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총력

추석명절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공항·항만에서의 집중방역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추석명절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해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석명절 연휴기간 제주공항 및 항만으로 들어오는 귀성객 및 관광객을 포함한 입도객과 도내 반입 차량의 증가로 가축전염병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는 공항과 항만의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입도객과 반입차량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축산사업장 방문 자제 등 방역 지도를 강화하고, 도내 반입구

지 가축이나 축산물 등의 반입여부 철저 단속을 통해 입도객의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중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 부탄캔 폭발사고의 원인은 사용자 취급부주의!  
반드시 가스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조리 중에 부탄캔을 화기 가까이 두거나 가열하는 것은 폭발사고의 원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큰 과대불판이나 알루미늄 포일은 사용 금지!

캠핑시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편리한 만큼 안전수칙도 꼭~ 지켜주세요!

\* 안전장치가 부착된 부탄캔 사용을 권장합니다. (가까운 상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아나운서 배지현